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이후에 흩어져서 모입니다.

10월 수요일집회는 이성운 전도사가 <골로새서>를 강의합니다.

서울연회 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태기행이 17일(월) 오전10시부터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속장·인도자 및 봉사자가 18일(화) 광릉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청파산악회에서 22일(토) 예봉산에 갑니다. 당일 오전 10 30분 운길산역에서 출발합니다.

고구리교회(강화 교동 소재)에서 성전건축을 위해 새우젓(한 통 15,000원)을 판매합니다.

윤여준 씨와 반정연 씨가 22일(토) 오후 1시 청파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걷기목상을 하십시오.

- * 예배 전에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 소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들의 목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드시되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식 당 봉 사 : 박영신 임영선 김순자 곽혜자 박규석 구성실
 10/23 식당 봉사 : 안홍숙 최성애 이명희 이증자 이수정a김세진 서원금
 오늘설거지봉사 : 박은혜 이나래 하진솔 김경연
 다음 주 설거지 : 안경아 김기성 양상철 임주빈
 새 교 우 : 김인석(4남) 이선화(7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성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짧아진 햇살과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맛을 더해가는 곡식과 과일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시련과 역경을 통해 자신만의 색과 맛을 찾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큰 선거들을 앞두고 술렁거리는 이 사회를 살피주십시오. ‘어떻게든 이번 한 번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속임과 비방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정의와 민의에 기초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3:1 인도자
- ♣ 교 독 문 49. 시편108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21(통35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함께
- ♣ 성경봉독 I. 마12:1-8 천승호 학생
 II. 렘42:19-22 이성범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비움과 회복의 안식 김재흥 목사
 II. 들음과 따름 사이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경연 김필순 문복순 최현선 김남종 오복순 박찬덕 조병익 조정연
 김세룡 이용숙 광새롬 민병배 문현미 국지연 무명

월정헌금:

고속이 김승현 김수진 김종문 지명주 김순자 문금석 박인혁 이인웅
 오송경 조병주 하정석 이명희 조선환 차혜심 주경진 이윤정 홍춘숙
 정종삼 배순미

감사헌금:

이유일 김미희 박옥식 윤승현 강순배 김중수 이순정 조병주 홍순구
 안홍숙 김현동 강세기 이소애 유병선 정현선 문복순 최현선 무명

녹색꿈헌금:

백혜숙 허호범 박성실 이해령

생일감사헌금:

김인걸 유영남

	장혜숙	백혜숙	정두리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배부례
	임정자	최경미	서원금	정복순
	문영혜	이명희	곽혜자	김명순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김순복
	박효선	허정윤	김현주	홍복선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야외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정영선	이현숙	정옥영	송양진
	이영란	박미영	박미영	이영란
	박혜경	조항미	정현선	임창선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 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어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혼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혼할 수야 없겠지

긴 말 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않아도 밤잠이 어렵지 않는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449(통377). 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들은 바를 행하며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르며 사십시오. 따름 속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다함께 :	아멘. 말씀 듣기는 즐거웠지만 따름에는 주저함이 많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골로새서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박병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공동기도	윤 윤 선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박석희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홍복선 권미숙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예수님의 몸과 피

여러분은 언제 봐도 늘씬하고 검은 피부 미인이어서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퀴즈 푸는 것으로 복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톤즈에 오던 해의 일입니다. 공소에서 성탄 아침 미사를 드릴 때 망고나무 아래에서 태어난 아기 이름이 뭐였죠?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도 천재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과 생일이 같아 임마누엘이라 지었는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그런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가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말씀 속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언약! 계약!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파트 사이의 약속입니다. 덩카족인 여러분은 결혼할 때 신랑 집안에서 신부 집에 소를 줍니다. 작게는 몇 십 마리에서 많게는 몇 백 마리가 되는 소를 주고 신부를 데려가는 것은 양가의 의무이며, 언약을 위한 전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약에는 계약이 성립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입니다. 신랑의 집에서는 소를 줄 테니 신부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신부 측이 받아들이면 그 계약은 성립되었다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식입니다. 결혼식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양측의 예식이고 이것이 이뤄지면 서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는 덩카족이 소를 주는 것처럼, 약속의 피로 산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바탕으로 서로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은 ‘나는 의무를 다할 테니, 너

도 너의 의무를 다하라’는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만찬에도 내용과 예식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제가 성찬례를 하기 전에 복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예식은 성체를 주고 받아 먹음으로 서로의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돌봐 주실 거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맺는 이 계약에는 여러분이 예전에 양이나 소를 주는 것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계약을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로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으셨고 그의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마시는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계약의 피입니다. 그것으로 계약이 완성됐다는 사인을 한 것이죠. ...

최후의 만찬에서 계약의 의식인 성체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이면 이 미사를 성대하게 드립니다. 톤즈 돈보스코에 계시는 수사님과 신부님들은 매일 이 미사를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계약의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은 어떤 계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몸과 피의 형태로 남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미사 때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며 내어 주신 계약의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떠올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과 맺은 계약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늘 말씀을 잘 지켜왔지만, 위 복음을 통해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 이태석 신부, 「당신의 이름은 사랑」 중에서